

# 삼국시기 고구려를 위주로 한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 대한 리해

정 성 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는 세나라가운데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고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습니다.》(《김정일전집》 제4권 150페이지)

삼국시기 우리 나라 농업은 고구려에서 먼저 시작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 봉건시기 농업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그 영향밑에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에서도 농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삼국시기 농업도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삼국시기 고구려를 위주로 한 농업발전의 발전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삼국시기 농업은 고구려에서 시작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B.C.277년에 성립된 고구려는 A.D.668년까지 근 1 000여년간 존재한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로서 제일 큰 령토를 가진 강대국이었다.

고구려에서의 농업발전은 농경지의 확대와 농기구의 발전, 주요알곡작물의 다양한 생산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는 건국직후부터 1세기 70년대까지 소국통합과 370년대까지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 5세기말~6세기초까지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령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5세기말~6세기초에 고구려의 령역은 최대로 늘어났는데 남쪽으로 아산만-금강-소백산-청하(경상북도 영덕, 후에는 강원도 삼척으로 옮김)까지, 북쪽으로 내몽골 동부 대흥안령산줄기, 흑룡강 남쪽 류역과 하류류역에까지 미치여 백제, 신라, 가야를 합친 것보다 10배 되는 남북 5천리, 동서 6천리의 령토를 가진 대강국으로서 당시 우리 나라 전체 령역의 10분의 9를 차지한 나라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령역이 건국당시의 령역보다 5~6배로 늘어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령토의 확장은 경지면적의 확장을 동반하므로 5세기말~6세기초 고구려의 경지면적과 알곡생산량은 건국직후보다 몇배나 늘어났으며 우리 나라 알곡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볼수 있다.

물론 고구려는 그후 신라의 령토확장과 외세의존책동으로 남방에서의 일정한 지역을 잃었으므로 경지면적과 알곡생산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고구려의 농업발전은 질 좋은 농기구가 크게 개선되고 많이 생산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인민들은 농사일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질 좋은 쇠 농기구들을 개선하고 그것을 생산에 널리 도입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제철, 제강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쇠로 만든 농기구들인 보습, 삽, 가래, 작두, 쇠스랑, 낫, 쟁이, 호미 등을 많이 만들어 농사일에 리용하였다.

특히 고대시기에 볼수 없었던 철제보습들을 많이 만들어 농사일에 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쪽의 료녕성 무순시 고이산성 그리고 정룡사터와 상원2호무덤, 남쪽의 황해남도 신원군 아양리(남평양터) 등지에서 크고작은 철제보습들이 나오면서 알수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철제보습들은 대, 중, 소의 세가지 류형으로 갈라볼수 있는데 대형보

습은 길이 약 80cm, 너비 약 60cm였고 중형보습은 길이 34.5cm, 너비 32cm나 되었다. 대형 및 중형보습에는 흙이 벗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벗》이라는 철판도 덧대었다.

중형보습은 그 크기로 보아 소 한마리를 메워서 끌고 대형보습은 두마리이상의 소를 메워 끌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소를 리용한 밭갈이가 전국적 범위에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고구려유적들에서 나온 삽이나 가래는 모두 쇠로 만든것인데 후세와는 달리 날부분만 쇠로 만든것이 특징이다. 삽날은 너비가 좁고 길이가 10~15cm정도이고 가래는 큰것과 작은것의 두 종류가 있었다.

큰가래는 좌우끝에 뿔린 2개의 구멍에 줄을 달아 여섯명이 함께 잡아당겨 땅을 파서 먼 곳에 던질수 있게 하였다. 이 가래는 논밭을 고루 퍼서 톱을 짓고 물도랑을 짜는 작업 등에 쓰이었다.

가을걷이에 쓴 쇠낫은 두가지 형태였는데 한가지는 폭이 좁고 길며 넓고 만곡부가 없고 앞부분이 직선이며 다른 한가지는 폭이 넓고 안쪽에 만곡을 형성한것이다.

쇠괭이와 쇠호미 역시 능률적인 기구들이었다. 이러한 농기구들은 논밭갈이와 김매기, 알곡수확을 보다 능률적이고 빨리 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부쩍 높이였다.

고구려에서의 농업발전은 알곡품종이 훨씬 다양하고 영농방법이 크게 개선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고구려력사기록에는 《오곡》이란 표현이 여러곳에 기록되어있는데 그것은 고구려에서 많은 알곡작물이 재배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548년 북쪽지방인 환도에서 《상서로운 벼》를 바쳤다는것은 추위에 견디는 우량종자가 적지 않게 재배된 사실을 의미한다.

이밖에 고구려에서는 콩과 조, 보리가 많이 재배되었다. 덕흥리 벽화무덤에 씌여진 글에 《장을 담그어 먹었는데 한개 창고량만큼 먹었다.》, 《통전》의 고구려전에 《부세로 무는 것은 비단과 메밀(보리) 조였다.》라고 한 기록들은 고구려에서 벼뿐만아니라 콩, 조, 보리 등 다양한 작물을 심고 가꾸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결과 고구려에서의 알곡생산량은 중세로서는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광개토왕릉비에서 《오곡이 풍요하게 무르익》고 《나라가 부유하다.》라고 기록된것은 이를 시사해주고있다.

실례로 649년 당나라와의 전쟁때 고구려의 개모성과 룡동성에 각각 10만석, 50만석의 군량이 저축되어있었으며 그밖에 수십개의 중요한 성들에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은 곡식이 저축되어있었다는것을 미루어보아 당시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은 수백만석에 달하였다고 볼수 있다.(《삼국사기》 권21 보장왕4년 4월, 5월)

참으로 고구려는 삼국시기 농경지의 확대와 농기구개선, 영농방법개선과 품종의 다양화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생산량에서 주류를 이룬 나라로서 봉건시기 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영향밑에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에서도 농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후부여는 B.C.219년 고대부여가 고구려에 의하여 멸망한 후 그 남부지방은 고구려의 직할지로, 그 북부지방은 고구려의 속국으로 있다가 B.C.2세기초에 독자적으로 성립되어 A.D.5세기말까지 존재한 나라로서 그 건국초기부터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수 있다.

후부여의 영역은 고대부여보다 남쪽은 줄어들었지만 동쪽의 읍루를 정복함으로써 동쪽이 더 넓어졌다.

후부여인민들은 송화강과 그 지류의 넓은 논밭들에서 근면한 로동으로 농업생산량을 늘여나갔다. 후부여에서의 농업생산의 장성은 이 일대에서 발굴된 농업생산도구들과 저장용기인 대형질그릇을 놓고 알수 있다.

서차구유적에서는 쇠로 만든 도끼, 자귀, 낫을 비롯하여 250여개의 로동도구가 드러났으며 특히 비교적 얇은 철판으로 만든 보습도 2개나 나왔다. 보습과 낫을 비롯한 이러한 농기구들의 증가는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업생산능률을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농업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맞게 알곡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웅과 저장용기들이 부쩍 늘어났다. 후부여의 집자리들에서는 저장용웅으로 인정되는 움들이 자주 보이며 무덤들에서도 독과 비슷한 대형그릇, 저장용기들이 많이 드러났다.

로하심유적들에서 발굴된 그릇들중 가장 특징적인 그릇인 손잡이가 달린 대형의 목있는 단지들(20개)은 그 크기가 다른 그릇들에 비하여 배나 큰것으로 보아 알곡저장용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후부여에서 농업생산이 크게 장성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알곡을 축적하고있었다는것을 추측할수 있게 한다.

자료에 의하면 245~246년 위나라가 다른 나라를 칠 때 후부여가 위나라에 군량을 크게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후부여가 위나라에 많은 군량을 넘겨줄수 있을 정도로 알곡여유가 많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하며 고구려의 영향밑에 형성된 후부여가 농업발전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백제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아들 온조가 B.C.3세기 중엽 한강하류지역으로 내려와 세운 봉건소국에 기초하여 B.C.1세기말에 건국한 봉건국가로서 A.D.660년까지 근 700년간 존재한 나라이다.

백제는 성립후 령토확장을 하여 3세기말까지 전라남도 남부지역을 차지하고 4세기초까지 려성강류역의 일부 지역에까지 진출하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지역을 자기의 령역으로 하게 되었다.

백제인민들은 이 지역의 한강과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 등의 유리한 강류역과 논이 많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농업에 힘을 넣어 생산을 늘이였다.

백제의 농업발전은 관개시설이 확대되고 농기구가 발달한데서 그 발전을 엿볼수 있다. 백제는 성립초기부터 강하천뚝쌓기공사를 많이 하여 관개시설을 확대하였다. 222년에 처음으로 강하천공사를 진행하였다는것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삼국사기》권24 구수왕9년 3월)

백제에서는 4세기 중엽부터 큰 저수지들을 건설하여 관개수리시설을 발전시켜나갔다. 실례로 330년에 벽골제(오늘의 김제)에 큰 저수지가 건설되었는데 그 길이는 1 800보나 되었다고 한다.

백제인민들은 관개시설을 확대하였을뿐만아니라 농기구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을 확대하였다. 백제에서는 일찍부터 쇠보습을 비롯한 철제농기구들이 농업생산에 널리 도입되었다.

백제시대의 유적인 경기도 구의동유적에서는 쇠보습날(6개), 쇠괭이(2개), 쇠스랑(1개), 쇠낫(4개) 등이 일식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철제농기구가 일찍부터 널리 리용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백제의 영농방법에서도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다.

철제농기구를 부림짐승에 메워 리용하는 농사법이 널리 보급되고 물역전법에 의한 경작방법이 발농사뿐아니라 논농사에도 크게 리용되었다. 백제농민들은 관개농사가 발전한데

기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서 《수륙겸종》하는 앞선 농사법도 받아들이었다.

《수륙겸종》은 한땅에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는다는 의미로서 2모작농법을 말하며 우의 자료는 백제에서 대체로 벼가을걷이를 한 논에서 보리를 겸하여 생산하는 2모작 농사를 지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백제에서 2모작의 실시는 토지의 리용률을 2배로 높여주고 농업생산력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그리고 모내기방법에 의한 벼농사까지 널리 보급되어 농업생산량이 부쩍 늘어났다.

신라는 B.C.1세기초, 중엽 고조선의 유민들과 고구려의 영향밑에 사로봉건소국으로 출현하였다가 령토가 확장되면서 A.D.1세기초, 중엽에 성립된 나라이다.

신라봉건국의 농업발전은 부침땅면적이 늘어나고 관계공사에 의한 벼농사가 크게 발전한데서 알수 있다. 부침땅면적은 신라봉건통치배들의 령토확장과 인민들의 창조적투쟁이 강화되는 속에서 크게 확장되었다.

신라인민들은 나라의 령토와 경지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논밭을 새롭게 개관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어나갔다. 한편 그들은 창조적활동으로 건국직후부터 밭을 논으로 푸는 한편 제방뚝을 쌓고 물길을 파서 논에 물을 보장하였다. 144년과 531년에 전국각지에서 제방수리 공사가 크게 벌어졌고 429년에는 뚝의 길이가 2 170보에 달하는 인공저수지인 《시제》가 건설되었다.《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13년)

신라에서 관개저수지의 확대는 2모작을 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북사》에서는 《경지가 매우 좋고 기름지며 수륙겸종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논에 앞그루로 가을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봄에 벼를 심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신라에서의 농업발전은 쇠농기구의 급속한 보급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신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쇠농기구는 낫, 가래, 쇠스랑 등이었다.

신라에서는 영농방법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신라의 영향밑에서 이룩된 큰 전진은 새로운 소갈이법이 크게 장려된것이다.

신라에서의 농작물재배의 발전은 고구려와 백제의 앞선 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더욱 촉진되었다. 고구려의 쇠농기구의 보급과 백제의 2모작농법의 도입은 그 실례이다.

가야는 B.C.1세기초, 중엽에 발족한 봉건소국들에 기초하여 A.D.1세기 중엽에 6개의 소국들의 련맹체로 형성되었으며 6세기초, 중엽까지 500년간 존재한 나라이다.

가야인민들은 경지면적은 적지만 락동강과 그 지류주변의 기름진 평야를 리용하여 일찍부터 농업을 발전시켜나갔다.

가야지방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각종 농기구들은 당시 농업발전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상남도 진주 옥봉7호무덤에서는 쇠보습이 발굴되고 경상남도 창녕지방의 제 89호무덤에서는 쇠가래가 나왔다. 이러한 쇠보습과 쇠가래는 논밭갈이, 땅파기, 논두렁만들기, 작답 등 여러가지 농사일에 크게 리용되었다. 가야에서는 그밖에 쇠낫과 쇠호미 등이 많이 나왔다. 가야인민들은 이러한 발전된 쇠농기구들을 가지고 농업생산량을 크게 증진시켰다.

이처럼 삼국시기 농업은 고구려에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그 영향밑에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에서도 농업발전을 이룩하였다.